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3월 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공공의료팀장 • 담당자	김현수 ☎440-2751 강한목 ☎440-27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제2의료원, 용역결과 경제·정책적 타당성 있어

-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 B/C 값 500병상 기준 1.267, 400병상 기준 1.229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행숙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문위원)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연구원, 전문가(지역의료, 공공의료, 병원경영, 보건경제), 시민단체 등 10명

이번 보고회는 의료 및 운영계획, 건축계획, 경제성 분석 등 그동안의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용역 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설립될 인천 제2의료원은 동북 진료권(부평구, 계양구)의 책임의료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최우선 과제인 필수 중증의료 기능(심뇌혈관, 응급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약 4만㎡ 부지에 연면적 7만4,863㎡, 500병상 규모의 인천 제2의료원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도출됐다. 인력은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95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272억 원이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시 편익/비용 값(B/C)은 500병상일 경우 1.267, 400병상일 경우 1.22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비용 값이 1이 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500병상 규모의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시 직·간접적 고용유발 효과는 1만8,311명, 개원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연간 최대 115억 원, 중환자 및 음압병상 확충에 따른 사망률 16%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적인 편익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등 남은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400병상 규모의 대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현재 인천의료원만으로는 인천의 공공의료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인천 제2의료원의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된 만큼 설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최종 용역 보고회

